

미국 성장둔화, 중국 경착륙 공포... 올해 세계경제 더 암울하다

글로벌 석학들 신년 경제 전망

지난해 세계경제는 기세 좋게 출발했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안갯속에 갇혔다.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통화 불안, 유럽의 정치적 갈등 등 불안 요인이 겹쳤다. 새해 경제 전망은 작년보다 어둡다. 무엇보다 수년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미·중 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걱정이 제일 크다. 여러 불확실성이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으니 새해 세계경제가 어디로 나아갈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새해 경제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 본지는 올해 세계경제 전망과 함께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프리 프랭켈(Jeffrey Frankel) 미국 하버드대 교수, 배리 아이컨그린(Barry Eichengreen) 미 UC 버클리대 교수,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미 예일대 교수, 마크 파버(Marc Faber) 글로블마켓스 발행인,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석학 5명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 고갈

석학들은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미국 경제성장 둔화를 꼽았다. 제프리 프랭켈 교수는 “미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인위적인 재정 완화 정책 덕분에 강하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감세와 재정 부담이라는 ‘슈거 하이(sugar high·일시적 흥분 상태)’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달러를 풀고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통화·재정 완화 정책을 통해 성장세를 회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는

글로벌 석학들이 말하는 2019년 세계경제



제프리 프랭켈 미 하버드대 교수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재정 적자가 만든 ‘슈거 하이(sugar high)’ 효과가 새해에는 사라질 것”

배리 아이컨그린 미 UC버클리대 교수

“미국 연준이 올해 3차례 더 금리를 올린다 해도 세계경제는 충격을 잘 흡수할 것”

스티븐 로치 미 예일대 교수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다.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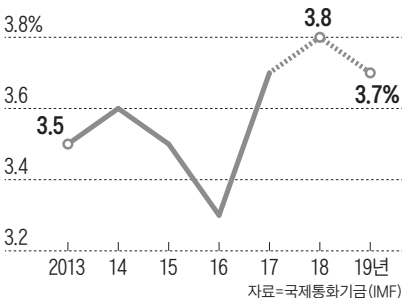
마크 파버 글로블마켓스 발행인

“무역 갈등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전망이 매우 어둡다”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중국 정부는 성장률 6.5%를 공언하겠지만,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할 것”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률 추이



등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성장에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이제 감세 정책의 효과는 끝나고 있는 반면, 재정 지출 확대는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로 돌아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크 파버 발행인은 “수년간 완화 정책 덕분에 주식, 채권, 부동산, 석유 등도

“미국, 잘해야 2% 성장”
재정 완화·감세 효과 사라져
금리인상, 세계경제 발목 잡을 듯
느려지는 성장 기관차 중국
금융시장 개방 등 실적 못내
성장률 6.3%로 하향 전망

든 자산의 가격이 팽창해 왔지만, 새해에는 통화 긴축, 경기 둔화로 여러 투자 전략이 동시다발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디 셰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정부 부채 거품이 터질 수 있다”며 “새해에 잘해야 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과열을 우려한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는 지난해 4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새해에도 2번 더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스티븐 로치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세계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달러 강세로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신흥국의 성장 동력도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배리 아이컨그린 교수는 그러나 “미국의 긴축 정책이 미국 경제를 둔화시키겠지만, 그것만으로 세계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 갈등, 중국 경착륙 등 악재
미국 경제 둔화에도 미·중 무역 갈등,

중국 경제 경착륙 등의 불안 요인이 겹칠 경우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관세 부가가 확대될 경우, 앞으로 세계 무역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5월 본격화된 미·중 간 무역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은 만나 90일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만일 90일 뒤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관세 폭탄이 재개될 경우, 양국 경제가 동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두 나라와 밀접한 전 세계 기업들의 판로가 막히고 투자가 위축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로치 교수는 “높은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새로운 투자, 다국적 생산, 기술 연

구 개발 등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해온 중국의 성장 속도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평균 6.3%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6.6%보다 0.3%포인트 둔화된 것이다.

앤디 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아마 올해도 6.5% 성장률을 제시하겠지만,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랭켈 교수는 “금융시장 개방, 환경 정책, 국유 기업의 비효율성 개선 등 중국 정부가 5년 전 내놓은 개혁 정책이 계획만큼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의 역할이 점점 비대해지는 것이 경착륙 공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화 기자

석학들의 충고

새해 한국 경제에도 걱정거리가 잔뜩 쌓여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질수록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수출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올해도 대폭 인상되면서 기업들은 비용 상승 압박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고 신규 투자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영국계 바클레이스는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7%에서 최근 2.6%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2.7%에서 2.5%로 낮췄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3%까지 내려 잡고 있다.

본지가 인터뷰한 석학들은 수출 의존

“수출이 주도하는 한국 경제
중국발 위험에 면역력 없어”

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로 “중국의 성장 둔화”를 꼽았다. 한국 정부에는 “혁신 산업에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라”고 조언했다. 프랭켈 교수는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선한 의도와 달리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다시 측정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두 정책은 고용을 확대하거나 소득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디 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분야 등에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로치 교수는 “수출이 주도하는 한국 경제는 중국발 세계경제의 하강 위험에 면역력이 없다”며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대비하고 싶다면 국내 소비 증진과 혁신 산업 연구개발(R&D)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리 아이컨그린 교수는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진입 장벽 완화, 규제 개선, 정보기술(IT) 접목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경화 기자

“한국, 재정 확대 통한 성장보다 자동차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뉴스 9

“여러분의 앵커 신동욱이 찾아갑니다”

월·금 9:00PM | 신동욱 오현주